



HANSSEM

가고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한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자신의 집이 될때 건강, 화목, 성공이 시작됩니다.  
한샘은 개성 있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동북아를 이끌어 갈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 한샘  
[company.hanssem.com](http://company.hanssem.com)

# 빛을 주는 시각장애인의 사랑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카페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  
“커피 다섯 잔이요. 두 잔은 저희가 마실 거고요. 세 잔은 맡겨 주세요.”

조금 후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와 수줍게 물었다.  
“저... 혹시... 맡겨둔 커피 한 잔.... 있나요?”

알고 보니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는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 값을 미리 냈던 것이다.

맡겨두는 커피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이 전통이 세계를 돌고 돌아 이제 사람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샌드위치나 간단한 식사,  
심지어 마로니에의 어느 극장에는 맡겨두는 연극 티켓도 생겨났다.

커피를 마시며 한 여자가 미소를 짓는다.  
“오늘 누군가도 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겠지?”

그녀가 맡겨둔 따스한 마음에  
덩달아 내 마음도 훈훈해진다.

\_김재연 <너의 마음이 안녕하기를> 중에서



제호 격월간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5년 11월 30일 통권 122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배지혜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09+10  
September October

# Contents



04 포커스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 '카페모어' 5호점 오픈



08 새소식  
라오스, 우즈베키스탄에 희망의 빛 전하다



10 희망나눔  
2015 하반기 효명장학생 - 김지선 학생

11 사랑나눔  
나눔에 꾸준함을 더하다 - 세아상역(주)

12 해피스토리  
사진으로 만나는 9월~10월 사업 현장

16 문화산책  
2014년, 셋째 딸의 특별한 결혼식


17 정보&이슈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 '북성동'

18 미리보기  
12월, 1월 행사 안내

19 나눔플러스  
후원 안내



커피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납니다.



# CAFE MORE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5호점 오픈!**

지난 10월, 카페모아가 가산디지털단지 내 빌딩가에 5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며 '맛있는 커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름을 알린 카페모아.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다섯 번째 카페모아,  
가산점의 개소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 다섯 번째 카페모아, 새롭게 문을 열다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카페모아 5호점 개소식이 가산디지털단지 내 빌딩가에서 열렸습니다. 의미 있는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김선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을 비롯한 최동익 국회의원, 김미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본 법인 이사인 정명철 도립교회 담임목사, 본 법인 서기이사인 이순창 연신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개소식은 이순창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정명철 목사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카페모아 경과보고와 조이풀합창단의 특별 찬양도 이어졌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아도 청각, 후각, 촉각 등 온 몸의 감각을 사용해 능숙하게 커피를 만든다. 이들은 커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 카페모아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같이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페모아는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사장 김선태 목사)에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으로, 안마업에만 한정되어있던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개설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입니다. 2009년 1호점 개소에 이어 올해 5호점 개소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 편견에 당당히 맞서며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낸 시각장애인들의 노력과 이들의 자립을 응원한 복지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꿈꾸며, 소통할 수 있기를

현재 카페모아는 5호점을 포함해, 봉천점(본점)과 숙명여대점, 관악구청점, 실로암안과병원점까지 총 5개의 지점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취업해 자립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모아는 장애인직업 자립생활의 성공적인 모델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개소한 카페모아 5호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 내 빌딩가에 자리를 잡아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카페모아 5호점은 윤혜원, 김선영, 문선영 바리스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수료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로암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1기 수료생이자, 올해 전국장애인 바리스타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기도 한 윤혜원 씨는 “처음 바리스타로서 일하게 됐던 때를 잊을 수 없다. 카페모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카페모아. 5호점인 가산점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입금 전액은 근로장애인 복리후생 및 카페모아 추가 개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들며, 꿈을 꾸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실로암 가족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카페모아 윤혜원 바리스타

“처음 바리스타로서 일하게 됐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카페모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 Share Our Vision, Share Our Love

# 라오스, 우즈베키스탄에 희망의 빛 전하다



### 라오스에 한국의 선진 안마기술 전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 보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마사 자격증 발급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등 특정 직업군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제도적 지원이 따르지 않아 장애인들의 직업 확보 및 자립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국제장애인자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라오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사양성 프로그램과 전문안마사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식 안마 기술 전수에 나선 실로암자립생활센터 나병택 소장(시각장애 1급)은 "라오스 시각장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다. 현지에는 태국식 안마를 기본으로 하는데 한국식 안마법을 배우고 적

용한 결과 고객들의 반응이 더욱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라오스시각장애인협회와 MOU를 체결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월 18일(금) 기증식을 통해 현지의 낙후된 안마센터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재활보조기기인 흰지팡이, 점자용지를 전달하며 장애인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기증식에는 김미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해 라오스시각장애인연합회(LAB) 대표 Kongkeo Tounalom, 라오스 국회의원 Ketsana Lassachack,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 김수권, 최동익 국회의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라오스시각장애인연합회(LAB)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로암 복지관의 지속적인 지원은 현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의 기회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소외된 우즈베키스탄 장애학생 위한 적극적인 지원 펼쳐

이어 10월 3일(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현지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타슈켄트시 국립맹학교와 아항가란시 장애아동 제58 특수학교에서도 교육재활 지원사업을 위한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즈베키스탄 Soglom Avlod Uchun재단과 협력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재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지에 장애인 교육재활 프로그램 노하우를 전하고 특수교사 역량을 강화시켜, 우즈베키스탄에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 교육재활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타슈켄트시 국립맹학교 기증식에는 최동익 국회의원, Soglom Avlod Uchun재단 회장 이나모바, 현지 시각장애인협회장 압두나비예프 압두가움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점자프린터, 점판, 드럼, 키보드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기증식에서 최동익 국회의원은 "어린 시절,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갖게 된 나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오늘 교육기회 재 지원을 받은 장애 학생들도 장애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나라를 일으키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항가란시 장애아동 제58 특수학교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이욱헌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최동익 국회의원, Soglom Avlod Uchun재단 회장 이나모바 등이 참석했으며, 운동, 무용, 음악, 언어 등 직업재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재활기자재와 크러치 및 크러치 팀 2천개가 Soglom Avlod Uchun재단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현지 학교의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해 선진화된 장애인복지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자도서 제작 인력을 현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장애학생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현지 장애학생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빛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 받은 만큼 나누는 삶 살고 싶어요



2015년 하반기 효명장학생 김지선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

미숙아망막증으로 태어나 빛을 잃은 그녀에게 바이올린은 좋은 친구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국내외 음악콩쿨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린 그녀는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반듯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 음악콩쿨에서 수상경력이 있을 만큼 바이올린 연주실력이 대단한데요,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배웠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피아노학원에서 우연히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저건 어떤 악기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클래식 CD에서 타이슨명상곡을 들었는데 그때 바이올린 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했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너무 감동적이라 한참을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시각장애인으로 악기를 배우기 쉽지 않았을텐데요.**

물론, 불편함이 컸지만 재미있었어요. 당시에 아버지가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곤 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바이올린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고. 지금은 동국대 음대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그분 덕분에 지금까지 바이올린과 함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대학에서 인기가 많아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입학하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의 제안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SK Happy Music School에서 비장애학생들과 2년 정도 집중 레슨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과정 오디션에 합격해 6년 동안 실기와 이론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쌓았죠. 대학교 입학 전부터 여러 경연에 참가하는 등 값진 경험도 많이 했어요. 2010년 도쿄에서 열린 헬렌켈러 블라인드 인터네셔널 콩쿨에서 1등을 차지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밖에도 2010년 음악춘추콩쿨에서 2등, 2011년 이화경연콩쿨에서 3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수상경력이 대단한데요? 대학교 입학 후, 2015년 하반기 효명장학생으로 선정됐는데, 장학금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바이올린 연습이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께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레슨비로 쓰거나, 새로운 악보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또 종종 연주회에 초청되는데 그때 입을 수 있는 의상을 구입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대학 졸업 전까지는 국내외 콩쿨에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실기 뿐 아니라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하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배운 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목표를 생각하면 열심히 연습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웃음)

# 나눔에 꾸준함을 더하다 세아상역(주)



꾸준함의 가치를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꾸준한 정성과 정직함으로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준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세아상역이 말하는 나눔과 후원의 의미를 들어봅니다. (Interviewee : 세아상역 해외영업본부장 권중훈 부장, 홍보담당자 김영훈 주임)

**실로암복지관 상하반기 바자회에서 판매되는 의류를 꾸준히 후원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계기로 후원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후원 전부터 온라인 뉴스레터나 소식지를 통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후원 문의를 받았고, 성장한 만큼 기여하는 회사의 핵심가치 '상생추구'를 실천하자는 의미로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함께 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로암 복지관의 다양한 사업에 놀란 적이 많아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꾸준한 후원을 통해 의미 있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로암복지관 후원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바자회 의류를 지원한 것은 대략 5년 전부터입니다. 세아상역은 의류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으로 고객사(바이어)들의 옷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샘플들을 만드는데요. 출고가 완료된 후 다양한 샘플들을 모아 실로암복지관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500여 장 정도 기부했

며, 시중 판매 금액으로 본다면 약 1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자회 때마다 세아상역의 후원물품이 인기리에 판매됩니다. 후원물이 잘 판매되어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후원한 물품이 나눔의 좋은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인기가 많아서 매번 품절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후원을 할 때 가장 가치는 두는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 대량의 제품을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사랑을 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식의 후원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를 읽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헬렌켈러는 여러 개의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 두 개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있고, 또한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저희가 전한 나눔을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시길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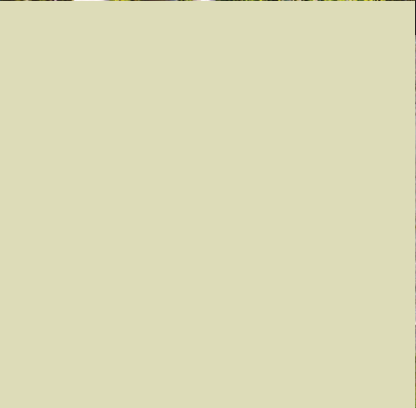
01



02



03



01

03



04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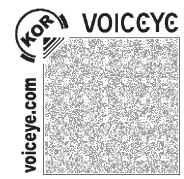


07



08

해피스토리



## “하반기 사랑나눔 바자회 열려”



2015년 <하반기 사랑나눔바자회>가 10월 16일 금요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등산복과 여성의류, 농산물, 생활용품, 식료품, 아동 도서, 먹거리, 프리마켓(수제과일청,빵소,액세서리,캔들,디퓨저 등), 카페 모아 베이커리 등 다양한 품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바자회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채워지는데요 이번 바자회를 위해 영원무역과 세아상역 그리고 이워홀, 선우어묵, 글송이, 지오마트 봉천점, 굿센스, 그린나래 프리마켓팀이 물품과 식자재를 아낌없이 후원해주셨습니다. 또한, 적십자 봉사단과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바자회 현장이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자회에 찾아오셔서 소중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이용자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바자회는 2016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니, 다시 한 번, 소중한 나눔과 후원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2015년 시각장애인 산악종주\_9월 3일~4일 문화체육지원센터는 관악구재향군인회의 후원을 받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외연도로 산악종주를 다녀왔습니다.
- 02 3차 활동지원사업 보수교육\_9월 11일 2015년 3차 활동지원사업 보수교육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돌봄서비스 표준안내와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져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 03 생활체육교실 텐덤바이크\_9월 12일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자원봉사단체인 빈서울과 삼성대학교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반기 첫 텐덤바이크를 실시했습니다.
- 04 성주재단 Woman Dream 바자회\_9월 15일 성주재단(MCM)에서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여 복지관 지하강당에서 바자회를 실시했습니다.

- 05 4차 활동지원사업 나들이\_9월 22일 지역사회지원센터는 활동지원사업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과 함께 양평소나무치즈체험마을을 방문해 치즈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 06 제13회 특수교육산업 홍보전\_9월 8일~9일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한 특수교육산업전에 참여하여 Korean JAWS, LUX Zoom, SEIKA mini 등을 전시했습니다.
- 07 아동학습지원프로그램 살아 숨 쉬는 역사이야기\_9월 17일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서울맹학교 6학년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역사이야기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 08 주간보호센터 테마여행\_9월 16일~17일 주간보호센터는 강원도 평창으로 테마여행을 떠나 삼양목장과 경포대 해수욕장, 허브마을과 이효석 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09



11



12



10



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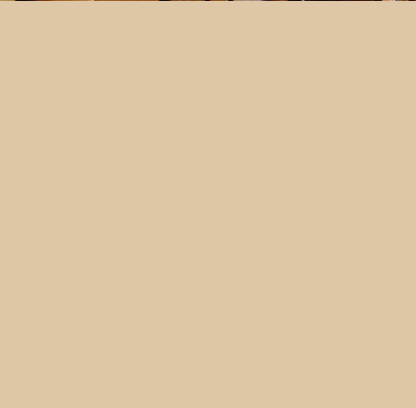
13



14



16



15



09 세아상역 '사랑나눔바자회' 의류품 전달식\_10월 14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세아상역으로부터 '사랑나눔바자회'를 위한 1,500만원 규모의 의류를 후원받았습니다.

10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_10월 16일~17일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돌봄휴가제를 통해 중복 체전시 일대에서 청풍문화재단지를 관람하고 유람선에 탑승하며 멋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11 청운중봉사단과 함께하는 학부모 점자교실 초급반\_10월 중  
청운중학교 봉사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부모 점자교실 초급반을 개설해 점형, 점자규정, 점자프로그램 등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관현맹인전통예술단, KBS 국악한마당 출연\_10월 8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변중혁 감독과 이진용 단원이 KBS <국악 한마당>에 출연해 해금과 피아노 2중주를 선보였습니다.

13 음악점역·교정사 양성교육\_10월 20일  
서울오라토리오 합창단원들을 대상으로 음악점역·교정사의 소개와 자경중 취득 안내, 시각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4 초급일본어회화교실 체험학습\_10월 21일  
일본어를 배우기에 앞서, 일본과 일본인을 더욱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15 2015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참여\_10월 22일~23일  
국내의 보조공학기기 관련 44개 업체가 참여한 박람회에서 정보기술개발팀은 Korean JAWS, Lux Zoom, 세이카미니, 도그멀티 슈퍼 등을 전시했습니다.

16 10월 도서관 테마교육\_10월 중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은 '할로윈'을 주제로 '10월 도서관 테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할로윈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체험했습니다.

## “서울북페스티벌에서 촉각교재 전시회 진행”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제8회 '서울북페스티벌'에 참가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촉각교재를 선보였습니다.

서울북페스티벌은 도서관 기반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촉각으로 소통하라 또 하나의 눈>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 1층에서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4일~25일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시각장애 인식개선캠페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는 촉각교재의 필요성과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특별 강연이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관람객들은 3D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촉각교재와 촉지도 등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연상할 수 있게 제작된 촉각도서는 시각장애인들의 학습 능력과 독서 활동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촉각도서 및 시각장애인 대체도서의 인지도가 높아져, 더욱 발전된 대체도서들이 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5년 실로암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작 소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센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감동스러운 스토리로 공모전 최우수상을 차지한 이기춘 활동보조인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 마음의 온도를 높여요

### 2014년, 셋째 딸의 특별한 결혼식

나에게 세 명의 딸이 있다. 그 중 셋째 딸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딸이다. 몇 년 전 자영업을 하던 나는 사정이 생겨 모든 일을 접은 후 집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시각장애인 활동보조를 했던 아내를 통해 한 이용자를 알게 되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이용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나는 가끔 차를 이용해 아내의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아내의 나에게 활동보조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 결국 나는 교육을 이수해 본격적으로 활동보조를 시작했다. 활동보조에 익숙해질 무렵, 유독 아내를 잘 따랐던, 얼굴도 마음도 참 예쁜 그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셋째 딸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얼마 후 이용자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

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는 두 사람을 야외 수목원에 데려가 사진도 찍어주며 마음껏 데이트 할 수 있게 도왔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었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집이 지방이었고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내와 나는 그 과정을 함께 준비해주기로 했다. 나는 이미 딸 둘과 아들 하나를 결혼시켰지만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준비하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

그렇게 나의 셋째 딸이 된 이용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딸들과도 의논을 하면서 친자매처럼 잘 지냈고,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의기투합해 한복 고르기, 메이크업 슝 결정, 웨딩사진 촬영, 신혼살림 준비도 무사히 마쳤다.

결혼식 당일, 우리가 함께 골라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를 보니 정말 아름답고 천사 같았다.

비록 혼주석에 우리 부부가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나의 셋째 딸을 시집보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뿌듯하기도 했지만, 웬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뒤로도 셋째 딸 부부는 우리 집이 서울에 있는 친정이라 말하면서 방문하곤 한다. 거리가 멀어진 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낼 것이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로 만났지만 지금은 가족이 된 셋째 딸과 사위와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 만나게 될 이용자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2014년 겨울, 셋째 딸의 결혼식은 나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었다.

\*지면 사정에 따라 내용 일부가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 '복성동'

### 생각과 마음을 담아 '찰칵'

2층 주택을 개조해 만든 복성동은 아담한 미로 구조의 전시관입니다. 전시 공간 중간 중간에 편한 의자와 탁자를 비치해 차를 마시면서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성동의 주인은 인천해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상봉 씨(60). 그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퇴직 후에도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살아온 30년의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 '복성동'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통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사진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의 사진촬영 과정은 비장애인과의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촬영을 하지 않으며,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을 동원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과 흐릿하게나마 빛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찍을 이뤄 사

진 촬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주변 풍경과 분위기 등을 전해 주면, 냄새와 소리·촉감 등을 동원해 셔터를 누르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촬영 결과물을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진에 담으려는 과정, 그 자체가 힐링이고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찍은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 받음으로써 사진 작업에 대한 성취감도 크게 느낀다고 하네요.

앞으로 복성동에는 시각장애인의 사진 전시뿐 아니라 전시 작품의 판매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시각장애인 작가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니, 한번쯤 방문하셔서 이들의 담은 세상을 관람해보세요. 관람객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는 아낌없는 박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 렌즈로 보는 세상

시각장애인이 찍은 사진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찍은 사진만을 전시하기 위한 갤러리 '복성동'이 인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는 이 공간은 갤러리 겸 아늑한 카페로 특화되어, 누구나 편히 들러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Program & Notice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 2015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

한해 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시신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18시 30분
- 장 소 : 아이컨벤션웨딩 홀(서울시 용산구)
- 문 의 : (02)880-0866 홍보팀

### 해외지원사업 보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년 기획사업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위탁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사업 진행사항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20시
- 장 소 : 아이컨벤션웨딩 홀(서울시 용산구)
- 문 의 : (02)880-0870~2 국제장애인지원센터

### 볼링클럽대회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클럽 동호인들 간의 실력을 겨루고, 정보교류 및 친선을 목적으로 클럽전 볼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11일(금)
- 장 소 : 위너스볼링장(서울시 금천구)
- 문 의 : (02)880-0832 문화체육지원센터

### 재가시각장애인 대상 온천나들이

외부활동이 힘든 고령의 재가시각장애인 위주로 온천욕 및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도모하고 건강과 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 장 소 : 서울, 경기 인근 온천 시유나
- 문 의 : (02)880-0825 지역사회지원센터

### 2015 활동보조인 송년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활동보조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송년회를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 장 소 : 아카데미컨벤션웨딩홀(서울시 동작구)
- 문 의 : (02)880-0823 지역사회지원센터

### CTS 기독교TV '7000미라클\_예수사랑 여기에'

CTS 기독교TV 프로그램인 '7000미라클\_예수사랑 여기에'에서 실로암안과병원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사업들을 소개하는 방송 촬영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 장 소 : 종각 보신각공원
- 문 의 : (02)880-0865 홍보팀

###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 시각장애인 가정에 산타와 루돌프 복장으로 방문하여 케를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23일(수)
- 장 소 : 신청자 가정 내
- 문 의 : (02)880-0602 가족지원센터

### 2015년 음악재활아카데미 성인반 수료식

음악재활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하여 1년에 걸친 아카데미 수업에 대한 성취감과 향후 이루어질 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중
- 장 소 : 복지관 강당
- 문 의 : (02)880-0660~8 음악점역팀

### 취업자 간담회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자 간담회를 진행하여 친목도모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중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문 의 : (02)880-0850~4 고용지원센터

### 근로지원인 보수교육(송년회)

근로지원인 송년회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근로지원인상 등을 시상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중
- 장 소 : 외부식당
- 문 의 : (02)880-0850~4 고용지원센터

### 효명리더스클럽 12월 모임

효명장학생들의 모임을 지속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1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리더스클럽의 발전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 시 : 2015년 12월 중
- 장 소 : 외부 식당
- 문 의 : (02)880-0850~4 고용지원센터



September + October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내역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후원	실로암요양원후원	복지회후원	총액
9월	6,250,010	4,335,423	5,541,285	20,043,012	36,169,730
10월	23,279,430	2,255,000	2,651,230	481,500	28,667,160

## 후원자명단

### 복지관 후원

강문창 강미숙 강미혜 강민석 강창구 강희원 고미미 고선용 고선화 고슬기 고지후 광정아 광정훈 광현용 권승혜 권정훈 권정희 권희정 권혁국 김경애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순 김기영 김누리 김다혜 김도연 김동진 김동호 김명아 김무는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정 김민석 김민식 김민정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아 김선에 김선주 김선태 김선하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찬 김성화 김성훈 김세연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수정 김숙현 김순호 김양수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예은 김우도 김원봉 김유진 김윤진 김은민 김은실 김잔디 김재민 김재성 김재환 김정은 김종규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 중 김태희 김해인 김현도 김현정 김혜란 김혜민 김혜인 김호남 김호정 김희연 김희영 나가연 나민형 나서취 남기운 남우현 남정환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윤희 명태순 문소란 문정이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대상 박문숙 박미량 박민규 박상도 박선영 박세근 박세희 박솔인 박수호 박순이 박예지 박옥련 박용일 박은애 박정복 박종원 박지연 박지영 박지훈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박화경 방명애 배은정 배종석 배지혜 백순복 봉하중 서성교 서원호 서익승 서희경 성기는 성명숙 성지영 성지혜 손지애 손지영 송경원 송영화 송우정 송은숙 송재용 신덕수 신동선 신성만 신종현 신준우 신하나 신혜경 신홍연 심권섭 심재민 심재숙 양관동 양민정 양지혜 양혜진 양호열 엄경순 엄현희 엄리라 오세용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하나 우재연 유미현 유자영 유지연 윤나라 윤대현 윤명현 윤보라 윤성재 윤소정 윤지현 윤진국 윤하영 윤혜연 이광성 이규성 이길원 이동형 이동훈 이로서 이만승 이면우 이미영 이민기 이민환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실한 이세희 이 송 이수정 이예성 이예일 이옥희 이요한 이운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응무 이인애 이재용 이재은 이정아 이정원 이정현 이정준 이정현 이주호 이지선 이지영 이지훈 이진용 이진중 이진형 이찬신 이창진 이창현 이창홍 이태섭 이태준 이하영 이한미 이현근 이현숙 이혜현 이화정 임명숙 임수정 임은성 임중재 장석철 장선희 장수진 장용선 장은경 전경모 전아름 전영숙 전정자 정근우 정다운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현식 정성수 정수진 정연상 정영임 정욱자 정지현 정지혜 정태준 정해진 조건희 조남주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명 조유진 조은일 조은지 조은하 조진만 주재은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두수 최병현 최승원 최우정 최윤욱 최재석 최중철 최찬식 하은성 하은주 하중백 하효선 한성희 한숙자 한승진 한영실 한재용 한재용 함순식 함요한 함주영 함지연 홍권용 홍성현 호예진 홍일선 홍정연 황소영 황순욱 황정수 황호영 굿센스 남서울남성점 무안무학교회 삼성증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성주재단 세아상역 세플러코리아 신관중학교 실로암안과병원 양곡교회 영원아웃도어 외환은행 나눔재단 우리은행(서울대역지점) 큰은혜교회 평광고회 한화토탈 해오름교회 해피빈 MG순해보험

### 개인수술 후원

김애경 김혜순 서인선 심보라 이상훈 정인영 정향산 동부산교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신한메디비전

### 실로암요양원 후원

권수진 권승혜 권혜진 김광훈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무경 김병숙 김복희 김선태 김영선 김유나 김유빈 김은철 김은희 김민경 김정숙 김중홍 김태연 김태웅 김형도 김호직 노기훈 박고심 박성일 박옥련 박은애 박주희 백하정 봉하중 성옥순 손지영 신동선 심아름 안정임 윤찬호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보라 이봉희 이숙경 이순희 이영태 이정환 이종열 이진용 임은성 장혜승 정해용 조미경 조봉래 조아라 조영순 지정규 채용병 채효정 최영훈 하영태 한명희 한재근 함요한 함은창 함지영 함현식 허서영 홍복례 남원추어탕 실로암안과병원 우리은행 지엘엠세미콘 한만두식품 효명교회

### 복지회 후원

권수진 권영진 금융연 김남식 김말년 김미경 김미리 김미혜 김민주 김민혜 김성훈 김아름 김유빈 김정래 김정욱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노한연 노현기 맹석재 박상근 박성철 박옥희 서범수 신영실 심아름 양미나 윤재훈 이도건 이민정 이상정 이성표 이윤아 이창진 이창현 이하나 이행철 이혜현 임 영 임영희 전영욱 정대영 정정자 정종일 조정자 조행금 최동익 최상국 최희연 하미진 허승희 황윤희 동일교회 성주재단 재단법인미래의동반자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